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	일자리정책과장	신대현	02-2133-5445
	일자리정책팀장	김 신	02-2133-5447
	담 당 자	심보성 이시경	02-2133-5448 02-2133-5457
	교 육 본 부 장	최광식	02-2222-4260
	교 육 1 팀 장	김상훈	02-3667-7301
	관련 누리집	https://sesac.seoul.kr/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문과라도 괜찮아

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, 기업 주문형 교육과정 도입… 뽑고 싶은 현장형 인재 키운다

- 시, 기업이 주문하는 교육과정 신설, 채용연계형 직무 캠프, 인문학 강좌도 도입…경쟁력 강화
- 개발자 경진대회, 매칭데이 등 ‘청년취업사관학교’ 중심 네트워킹 강화해 실질취업으로 연계
- '23.5월 광진캠퍼스 시작으로 동북·서북·도심권 등 8개 자치구에 신규 캠퍼스 확대 조성

- 서울시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취업준비생들이 더 이상 ‘문송합니다(문과라서 죄송합니다)’라고 주눅들 필요 없도록 ‘기업이 뽑고 싶은 현장형 인재’를 키우는 ‘기업주문형 교육과정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문과, 이과 전공에 관계없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「2023년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계획」을 발표했다.
 - ‘청년취업사관학교’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산업 분야 전문 인력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,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.
 - 실제 현장수요 기반의 수준 높은 교육과 밀착 취업 지원을 통해 출

범 이후 수료생 4명 중에 3명(75%)이 취업에 성공했다. (22.12)

- 먼저, ①기업 원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‘주문형 교육과정’을 도입하고, 인턴십과 채용까지 연계한다. ②서울의 디자인, 디지털 헬스케어 등 산업거점별 중점 분야를 접목한 교육을 진행한다. ③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도 강화한다. ④취업 동기부여를 위해 취업격려금을 지원하고, ⑤ 수료생·교육생·구인기업, 교육기관 등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‘네트워킹’을 강화한다.

- 첫째, 기업과 함께 만들고, 교육하는 ‘기업 주문형 교육과정’을 도입한다. 교육 후에는 기업 현장에서 기업 멘토와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‘직무체험 캠프’를 진행해 ‘교육-인턴십-정규직 전환’을 하나의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.

- 둘째,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패션·디자인(동대문), 디지털 헬스케어(성북) 등 산업거점에 맞는 특화과정으로 운영한다. 거점별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, 교육생들은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서 취업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.
 - 패션이 강점인 동대문은 패션·디자인 산업에 메타버스·3D모델링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과정을 통해 가상착의 디자이너를 양성하고, 바이오가 강점인 성북은 의료·바이오 산업에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과정을 운영한다.

- 셋째, 교육생의 학습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, 취업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인문학 강좌도 제공한다.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, 이

를 토대로 교육생이 이공계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가 함께 작동하는 융합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넷째, 교육 기간 동안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면 100만원의 취업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캠퍼스별로 도입해 운영한다.
- 다섯째, 수료생, 교육생, 기업 등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‘네트워킹’을 강화한다. 청년취업사관학교 출범 3년을 맞아 수료생·교육생 및 구인기업, 교육기관 등이 참가하는 (가칭)새싹 축제(페스티벌)을 개최한다.
- 이 외에도 5월 중 프로그래밍 기량을 겨루는 ‘개발자 경진대회’(해커톤), 구인기업-교육·수료생 일자리를 연계하는 ‘이음의 날’(매칭데이), 취업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선·후배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‘청년취업사관학교 방문일’(홈커밍데이)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교육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. 2023년 한해에만 총 8개의 캠퍼스가 문을 열어,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 7곳을 포함해 15곳의 ‘청년취업사관학교’에서 연간 2,300명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.
 - ①5월 광진캠퍼스를 시작으로 ②6월 서대문, ③7월 중구, ④9월 종로, ⑤10월 성동, ⑥11월 동대문, ⑦12월 도봉, ⑧성북 캠퍼스가 문을 열고, 기존 연간 1,000명의 교육생 규모가 올해 2,300명까지 확대된다.
-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“올해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에 기업이 원하는 주문형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과정을 도입한다.”라며, “기업 현

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취업,창업 맞춤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
는 급변하는 산업현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청년인재를 키워내겠
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'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8개소 조성지

붙임

'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8개소 조성지

**동북권
(5개)**



- ▶ 시설명 :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(市)
- ▶ 위 치 :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64
- ▶ 면 적 : 1,069㎡



- ▶ 시설명 : BT-IT 융합센터(市)
- ▶ 위 치 : 성북구 오패산로3길 12, 2층
- ▶ 면 적 : 523㎡



- ▶ 시설명 : 광진문화예술회관
- ▶ 위 치 : 광진구 능동로 76, 1~2층
- ▶ 면 적 : 326㎡



- ▶ 시설명 : 씨드큐브 창동
- ▶ 위 치 : 도봉구 창동 1-28, 8층
- ▶ 면 적 : 2,201㎡



- ▶ 시설명 : 한양수자인 아파트
- ▶ 위 치 : 동대문구 용두동 39-1, 3층
- ▶ 면 적 : 2,726㎡

**도심권
(2개)**



- ▶ 시설명 : 지속가능윤리적패션허브
- ▶ 위 치 : 종로구 율곡로 283, 5층
- ▶ 면 적 : 603㎡



- ▶ 시설명 :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
- ▶ 위 치 : 중구 산림동 82-3, 6층
- ▶ 면 적 : 468㎡

**서북권
(1개)**



- ▶ 시설명 : 신촌 파랑고래
- ▶ 위 치 :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
- ▶ 면 적 : 808㎡